



국가형제회 회장 메시지

젠 파커

"주님의 종들이란 바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분의 음유시인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씨시 편집본 '형제 태양의 노래'

요즘 읽은 모든 기사는 "유례없는 시대에 ..."로 시작하는 것 같고, 이는 현실입니다. 너무도 많은 병자와 죽음을 봅니다. 너무도 많은 불의와 분열. 분노의 목소리와 도움의 울부짖음도 들립니다. 유행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일선의 많은 이들은 한계에 다달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회적 동요와 정치적 반목도 봅니다.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쳤지만 나의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들 때문에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길고 어려운 이번 여름 몇 달간 여러분의 말과 증거는 저를 일으켰습니다.

몇 주전 티보 카우저 국제형제회 회장이 격려의 비디오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모두 볼 기회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메시지에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회칙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은 삶의 희망과 기쁨에 "예"하고 응답한다. 회원은 수많은 고뇌와 비관주의에 대항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 (회헌 26.1)

지난 몇 달간 여러분이 다양한 삶을 목격하면서, 우리 형제회가 살아있음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행병은 우리의 형제회 삶에 대한 열망을 시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하였습니다. 시대의 표징에 새로운 방법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순간에 살면서 여성들에게 성소의 길을 열어준 클라라 성녀처럼, 우리도 지금의 역사적 순간에 유행병 속에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최근 다나 홀리스가 말했습니다.

전국의 여러 재속프란치스칸 형제자매가 이번 타우지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들은 프란치스칸들이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살고 살아 계시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앞으로 이루어질 선을 목격하고 사랑과 용서의 변화의 힘을 믿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지치고 스트레스 쌓인 긴 하루 끝에 오늘 했어야 했던 일들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려고 컴퓨터를 켜고 라 베르나 지구형제회에 온 "라 베르나 비전" 최근호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소식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최근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가운데 나타난 지구형제회 회장 제프 굼즈의 손에 집에서 구운 체리 파이 한쪽이 들려 있는 사진을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체리 파이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양성모임 공지였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성 프란치스코께서 눈을 반짝거리며 웃음을 머금고 뜨거운 죽 한 그릇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오시는 듯했습니다. 성인이 나에게 맛있게 먹고 즐기라고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절로 내 얼굴엔 웃음이 피었고 나의 근심들은 사라졌습니다.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사랑으로 걱정을 잊고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이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존경하길 간청합니다.” 단순 자매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작은 기쁨과 좋은 음식을 즐기는 것은 우리 카리스마의 한 부분이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모든 것을 접고 할 일을 내려 놓고 바이올린 막대기를 손에 들고 춤추면서 체리 파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뒤집어 졌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프란치스칸 성소도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기쁨과 형제적 격려의 근원이 되어 가슴을 영적 기쁨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평화와 선.

여러분의 자매, 잔



Jeff Gumz, OFS with his homemade cherry pie with vanilla ice cream topping

라 베르나 소식지에서:

“제프는 가족이 있는 고등학교 선생이자, 재속프란치스칸, 또한 램보 경기장 여행 안내자로 항상 바쁩니다. 그의 바쁜 일과에 체리 파이 굽기가 더해졌습니다! 제프는 칠월말 체리를 따는 것은 북서 위스콘신에 사는 기쁨 중 하나이고 도어 카운티는 체리 파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체리 파이를 즐길



Door County fresh picked cherries

기회입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레서피 동봉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회칙과 회헌과 다시 만나 공부하고 묵상하고 서약의 약속과 책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선 밝게 있어야 합니다.”
국가형제회 영적보조자 정규삼회 크리스토퍼 파나고프로스 신부

많은 우리는 지금의 유행병 격리 기간을 영적 탈바꿈의 시기로 볼 것입니다. 이 기간 중 어떻게 바뀌냐는 우리 안의 나비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미리암 캐네디, 헝가리의 엘리사벳 지구형제회

The pandemic has given us a lot of lemons. God has given us the recipe for lemonade.
케이트 크레인너트, 드렐셀의 성녀 캐서린 지구형제회



하느님의 놀라움 속의 60 일

내일 저는 예순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감사로 지난 59 일간 아이리쉬 소다 빵을 매일 구웠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지금 사랑하는 이들, 필요한 이들, 가슴이 무거운 이들, 제가 잘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로 빵을 배달하였고, 그들의 반응들이 저를 겸손케 하였습니다.

노랄 캐셀,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형제회, 말캣, 미시건

지구형제회 다양성 팀

지난 오월 조지 폴로이드씨의 비극적 죽음 직후 성 잔 다크 지구형제회 회장 세릴 프루구가 다양성 팀을 조직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다음은 세릴의 보고입니다.

다양성 팀 구성의 시작으로 폭력의 한 형태인 인종차별의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ZOOM 모임의 주제로 ‘우리는 누구인가?’로 삼고 참석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제회 생활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따돌림 하지는 않는가? 형제회 안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밖을 보기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제회 안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찾아 내적 치유를 위하여 차이점에 대하여 교육하고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온전히 되고서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참석자 모두가 형제회는 “내 집” 같고 모두의 삶에 힘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구형제회 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모든이에게 어떻게 진복팔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한부분이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 못합니다”라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합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고 다른 문화적 관점을 모르기에 우리는 모든 이와 의 진실한 대화를 배우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세릴 프루그, 성 잔 다크 지구형제회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코린토 2 4:8-10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리스마스를 훔치려는 그린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코비드-19 는 부활절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몸으로 미사에 참석해 성체를 모시지 못하겠지만 부활절은 올 것입니다. 외적인 부활절은 없겠지만, 우리 마음에 영혼에 부활절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맙시다.

팻 서로트킨, 가난의 성모님 지구형제회